

위즈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

나눔은 습관이고 생활입니다

“나눔의 실천은 습관이고 생활입니다.”

교육문화 벤처기업 주식회사 위즈코리아-위즈아일랜드의 이재환 대표는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한다. 또 “나눔은 연말연시의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처럼 생활이 되어야 한다”며 “유아 시절부터 나눔과 봉사, 이웃 사랑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아이를 생각하는 나눔 활동



(주)위즈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감성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육에 적용한 놀이학교 위즈아일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창사 3년 만에 전국 45개의 가맹원과 해외에

2개의 분원을 개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위즈아일랜드는 유아교육기관이므로 나눔의 실천도 아이들과 연관된 곳으로 하고 있다. 위즈사랑나눔봉사단을 조직해 꾸준히 서울대 어린이 병원과 극빈아동공동체와 샘사랑마을, 임마누엘의 집 등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성남YMCA와 한국 월드비전에 매달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 환자를 위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즈아일랜드 원생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300여만 원과 (주)위즈코리아 임직원들이 후원한 성금을 포함하여 모두 500만 원이다.

서울대 병원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이후 위즈코리아와 위즈아일랜드 원생이 후원하는 불우 어린이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도 공개해 후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위즈코리아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불우 어린이 환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위즈코리아의 나눔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먼저 지난 10월 위즈아일랜드 홍보이사로 위촉 받은 개그맨 박수홍 씨와 함께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박수홍 씨를 홍보이사로 위촉한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의 이미지가 위즈아일랜드의 이미지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위즈코리아는 박수홍 씨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결손 아동들의 쉼터인 의정부 소재 애신보육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히 대학에 입학하고도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엔 나를 위로하고 타인과 하나되게 하는 사랑 나눔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위즈코리아 전 임직원은 진정성을 갖고 꾸준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랑 나눔은 누구를 위한다거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그들을 통해 본인도 위로 받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부나 나눔 운동의 밑바닥에는 진정성이 있어야